

曆의 成立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 助教授 尹 暢烈

I. 緒 論

이 글은 五運六氣를 研究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一年의 四季, 二十四節氣, 七十二候, 日, 時刻 等の 原理를 理解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人間의 生活을 主로 時間的인 面에서 다루는 것이 歷과 曆인데 歷은 主로 過去의 事實을 다루는데 반해 曆은 主로 未來를 다룬다는데 특색이 있다. 特히 이 曆은 우리가 日常生活을 살아가면서 가장 必要한 것으로 이는 時間의 마디를 밝혀 놓은 것인데 이 자체는 또한 空間의 이동변화로 이룩되는 것이다. 時間은 과거에서 부터 未來를 향해 直線적으로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순환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微分해 보면 四季節, 二十四節氣, 七十二候, 365日 등으로 細分할 수 있으므로 歷法의 原理가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曆에 관한 最初의 記錄은 書經의 堯典에 있는 “乃命羲和하사 欽昊天 하야 曆象日月星辰하야 敬授人時 하시다. (唐堯가 羲氏와 和氏에게 命하사 天上에 있는 日月星辰의 運行規律를 觀察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때를 알려 주었다)” 이다. 이는 唐堯시대에 벌써 曆法이 具體化되어 百姓을 보살피는 爲政者의 主要한 任務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이는 다시말해 天雲과 地利를 人類가 有益하게 利用하게 된 起點이 曆의 活用부터 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 된다.

五運과 六氣는 一年을 다섯(五運)과 여섯(六氣)의 마디로 나누고 干支가 變化함에 따라 秩序있게 나타나는 복잡한 氣候의 變化를 把握하여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醫學氣象論이다. 따라서 曆法의 成立에 關한 理論은 五運六氣學의 研究에 先行되어야 할 事項으로 思料되어 이의 理解에 必要한 內容만을 中心으로 研究, 考察하는 바 이다.

1. 四時氣候(年, 月, 四季의 成立)

春夏秋冬의 四時中에 二十四節氣와 七十二候가 있는것을 말하는데 運氣를 研究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할 사항이다. 素問入式運氣論奧의 論四時氣候條에서 “日月運行 而四時成 以其有常也 故聖人立法以步之”는 四時의 의의를 序述한 것이고 “陰陽相錯 而萬物生 以其無窮也 故聖人指物以候之”는 氣候의 의의를 序述한 것이며 “其六氣終始早晏 五運大小盈虛 原之以至理 考之以至數 而垂示萬古 無有差忒也”¹⁾는 四時氣候가 運氣에 所用됨을 말한 것이다.

素問의 六節藏象論에서 “五日謂之候 三候謂之氣 六氣謂之時 四時謂之歲”²⁾라 하여 五日一候를 기본으로 候가 三個모이면 十五日 한 節氣를 이루고 이 節氣 6個가 모이면 90日이 한 계절이 되고 이 계절 4個가 모이면 一年이 된다는 뜻으로 이때에 벌써 歲實(一太陽年의 길이)과 그의 區分, 이에따른 時立氣布의 概念이 정립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또 同篇에서는 “日爲陽 月爲陰 行有分紀 周有道理 日行一度 月行十三度 而有奇焉 故大小月三百六十五日而成歲 積氣餘而盈閏矣”³⁾라 하여 日月

의 運行과 曆法 및 置閏法에 관한 內容이 실려 있다. 여기서 行有分紀와 周有道理는 日月이 天體中에서 一定한 方位와 軌道를 따라 쉬지않고 돌고 있다는 뜻이다.

日行一度는 地球가 太陽의 周圍를 한번 公轉하는데 三百六十五日이 걸리므로 平均的으로 매일 一度에 가깝게 運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地球는 靜止해 있고 太陽만 돈다고 생각했으므로 日行一度라고 한 것이다. 月行十三度而有奇는 月이 地球의 周圍를 한번 도는데 (三百六十度) 約 27.32日 (恒星月)이 걸리므로 平均은 $360 \text{度} \div 27.32 = 13.18 \text{度}$ 가 되어 月行十三度 有奇라 한 것이나 여기서 奇는 나머지가 있다는 말이다. 積氣餘而盈閏은 古代中國의 曆法은 回歸年으로 年을 삼고 朔望月로 月을 삼았다. 그러나 月이 한번 왔다 기우는데 平均 29.5305日이 걸리므로 실제 應用할 때는 計算하기 不便한 소수점은 떼어 버리고 月을 大小로 나누어 大月은 三十日로 하고 小月은 二十九日로 하였다.

一年中에 大小月 各6個씩 두니 總日數가 $30 \times 6 + 29 \times 6 = 354$ 日이 된다. 그러나 節氣와 日影의 變化에 따라 回歸年 (歲實)을 推算해보면 365, 2422日이 나오므로 朔望月에 따라 計算한 날짜와 11, 2422日 ($365.2422 - 354 = 11.2422$ 日)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月은 恒常 不足하고 節氣는 恒常有餘하게 되어 有餘한 節氣가 氣餘를 形成한다. 餘氣의 累計가 二十九日쯤 되었을때 一閏月을 두어 節氣와 月 사이에 有餘와 不足에 의해 생긴 偏差를 해결 할 수 있으니 三年에 一閏 五年에 再閏 十九年에 七閏을 두어 偏差를 해결 하였으니 이는 곧 陰陽調整의 成歲를 意味한다.

이러한 方法을 應用하기 위해서는 먼저 歲首를 確定하고 더 나아가 各 節氣의 偏差를 校正해야 하므로 同篇에서 “立端於始 表正於中 推餘於終而天道畢矣”⁴⁾라 한 것이다. 여기서 立은 確立한다는 뜻이고 端은 歲首의 뜻으로 立端의 뜻으로 立端於始란 말은 冬至를 一年四季節의 開始로 삼아 觀察한다는 뜻이다. 表正於中의 表는 圭表로서 古代에 日影의 길이를 觀察하던 器具이다. 따라서 이 말을 圭表로서 日影의 長短方位를 測定하여 日月의 運行度數를 把握하여 時令節氣의 偏差를 바로 잡는다는 말이다. 素問★ (一般的으로 正午에 施行했다)에 觀察했는데 冬至때 太陽의 그림자가 가장 길고 夏至때 太陽의 그림자가 가장 짧다. 推餘於終은 앞서 말한 積氣餘而盈閏으로 마지막에 餘氣를 計算해서 盈閏을 確定한다는 말이니 이 세가지의 事項을 通하면 天度之道를 마칠 수 있다는 말이다. 書傳에서도 “葦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⁵⁾라 한것은 바로 이상의 內容을 말한 것이다.

一年이 十二月이 있는 것은 위의 內容말고 다시 十二會에 의해 立証할 수 있다. 十二會는 日月이 十二次中, 一年에 十二番 만나는 것을 말한다. 十二次는 玄枵(子), 星紀(丑), 析木(寅), 大火(卯), 壽星(辰), 鶉尾(巳), 鶉火(午), 鶉首(未), 實沈(申), 大梁(酉), 降婁(戌), 娵訾(亥)를 말하는 것으로 天球의 赤道를 30°씩 十二等分하여 名稱을 붙인 것이다. 張介賓의 類經圖翼에서는 “十二辰次 如星記 析木之類 十二次也 斗杓所指之月 十二建也 日月所會之次 十二辰也. 如子月日 月會于星紀 乃在牛宿度中 丑月日月會于玄枵 乃在虛宿度中 天地之氣建在子 會在丑; 建在寅, 會在亥, 建在亥, 會在寅 十二宮相合 皆然 所以謂之六合”⁶⁾이라 하였고 氣數通論에서 “歲有十二會 故爲十二月 斗有十二建 故爲十二辰 斗之所建地上辰 辰之所會天上次 斗與辰合而月建 昭然矣”⁷⁾라 하였다.

月建과 卦를 配合해보면 十一月建은 子로 一陽卦復(☱)이 되고, 十二月建은 丑으로 二陽卦臨(☱)이 되고 正月建은 寅으로 三陽卦泰(☳)가 되고 二月建은 卯로 四陽卦大壯(☳)이 되고, 三月建은 辰으로 五陽卦(☳)가 되고 四月建은 巳로 六陽卦乾(☰)

也 春分之昏 鳥星畢見 以正仲春之節氣 轉以推季孟則可知 永 長也 謂下至之日 火蒼龍之中 星擧中則七星見可知 以正仲夏之氣節 季孟亦可知 宵 夜也 春言日 秋言夜互相備 虛 玄武 之中星 亦言七星皆以秋分日見 以正三秋 日短 冬至之日 昴 白虎之中星 亦以七星并見 以正冬之三節”라 記하였다. 이 말은 春分일에 朱雀七宿가 보이면 이때가 二月中の 仲春에 해당하고 夏至일에 蒼龍七宿가 보이면 이때는 五月中의 仲夏에 해당하고 冬至日 玄武七宿가 보이면 이때는 八月中의 仲秋에 해당하고 冬至일에 白虎七宿가 보이면 이때는 十一月中の 仲冬에 해당 한다는 것을 說明한 말이다.

堯가 살았던 時代는 B. C 2357~2258 (百年在位) 에 해당 하므로 四季와 二分二至의 인식이 上古時代로 溯及됨을 짐작할 수 있다. 古人들은 土圭를 使用하여 日影을 測量했으므로 상당히 正確하게 이 四氣를 測定할 수 있었던 것이다. 戰國末期에 나온 呂氏春秋 十二月紀에 비로소 孟春 仲春 孟夏 孟秋 仲秋 孟冬 仲冬의 八個月에 入春 日夜分 入夏 日長至 入秋 日夜分 立冬 日短至의 八節을 配合하였다.

禮記月令과 淮南子 時則訓은 모두 十二月紀의 合抄本인데 이는 前漢初年까지도 二十四氣의 名稱이 確定되지 않았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二十四氣의 名稱은 最初로 淮南子 天文訓에서 보이면 現在通用하는 二十四氣의 名稱 및 次序와 完全히 一致한다. 一年을 二十四氣로 나눈 것은 대체로 前漢初年以後 淮南子가 成書 (B. C 139) 되기 以前으로 推測된다.

漢書 律曆志에 실린 二十四氣의 此序와 淮南子에 記載된 것이 약간 다르다. 律曆志에서는 驚蟄을 正月中, 雨水를 二月節, 穀雨를 三月節, 清明을 三月中으로 하였다.

律曆志의 기록은 劉歆의 三統曆譜에 根據한 것인데 劉歆이 雨水와 驚蟄 二氣의 次序를 바꾸고 清明, 穀雨 二氣의 次序 바꾸었으며 다른 各氣의 次序를 改變시키지 않은 것은 禮記月令의 記錄에 따라 바꾼 것인데 이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당시의 사람들이 使用하던 曆法은 아니었다.

2) 節氣와 中氣

太初曆은 一回歸年을 平分하여 二十四氣로 삼았는데 每一氣의 길이는 平均 15. 2187日이다. 이는 또 冬至로 부터 세어 奇數의 차례에 해당하는 氣, 例를 들어 大寒 雨水 驚蟄을 中氣라 했고 偶數의 차례에 해당하는 氣, 即 小寒 入春 등등을 節氣가 稱했다. 現在에는 一般의으로 二十四節氣라고 總稱한다. 古人들은 中氣와 節氣를 各各 特定月에 配屬하였는데 例를 들면 雨水는 正月中氣가 되고 清明은 三月節氣가 되는 等等이다. 또 現代 天文學의으로 볼 때 二十四氣는 春分點을 基準點으로 하여 黃道를 東쪽으로 향하여 15°의 간격으로 一氣씩 配當한 것이다. 그리고 太陽은 各氣를 陽曆의 대략 일정한 날에 지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陰曆이 좋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冬至가 언제나 入春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陽曆이 며칠이나고 묻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中國에서는 明末에 中國에 들어온 時憲 利瑪竇 (Matteo Ricci, 1552~1610), 熊三拔 (Sabbath inde ursis, 1575~1620), 陽 瑪諾 (Emmanuel diaz, 1574~1659) 등이 徐光啓, 李之藻 등의 協력으로 西陽曆算에 관한 漢譯書를 내어 당시 大統曆의 결함을 보충하려 하였고 徐光啓에게 曆法을 고치도록 勸명을 내렸다. 마테오리치가 별세한 후 龍華民 (Nicolas Longbardi, 1559~1654), 鄧玉函 (Jean Terrenz or Shreck, 1576~1630) 등이 改曆에 참가 하였다. 그리고 開封府에 있던 羅雅谷 (Jacgues Rho, 1593~168

2) 西安府에 있던 湯若望(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을 북경에 불러 開曆事業에 종사 시켰다. 또한 順治二年에 새로운 曆法이 반포 되니 이것이 時憲曆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에서 1653年 부터 도입하여 사용 하였다. 따라서 時憲曆은 비론 陰曆(太陰太陽曆)이지만 西洋의 선교사들이 西洋曆法에 입각해서 二十四節氣를 配合했으므로 陰曆보다는 陽曆에 더 잘 맞게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본다. 16)

以上の 內容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宮名	中國古名	黃經度	中氣	節氣	現行曆日
百羊宮	降婁戌宮	0°-30°	春分 二月中	清明 三月節	3月21日~4月5日경
金牛宮	大梁酉宮	30-60	谷雨 三月中	入夏 四月節	4. 20~5. 6
雙子宮	實沈申宮	60-90	少滿 四月中	芒種 五月節	5. 21~6. 6
巨蟹宮	鶉首未宮	60-120	夏至 五月中	小暑 六月節	6. 21~7. 7
獅子宮	鶉火午宮	120-150	大暑 六月中	入秋 七月節	7. 23~8. 8
室女宮	鶉尾巳宮	150-180	處暑 七月中	白露 八月節	8. 23~9. 8
天秤宮	壽星辰宮	180-210	秋分 八月中	寒露 九月節	9. 23~10. 8
天蠍宮	大火卯宮	210-240	霜降 九月中	入冬 十月節	10. 23~11. 7
人馬宮	析木寅宮	240-270	小雪 十月中	大雪 十一月節	11. 22~12. 7
摩羯宮	星紀丑宮	270-300	冬至 十一月中	小寒 十二月節	12. 22~1. 6
寶瓶宮	玄枵子宮	300-330	大寒 十二月中	入春 正月節	1. 21~2. 4
雙魚宮	媿亥宮	330-360	雨水 正月中	驚蟄 二月節	2. 19~3. 6

<二十四節氣와 十二宮名>

3) 恒氣法과 定氣法

節氣를 確定하는 方法에는 두가지가 있다. 古曆에서는 恒氣法을 사용하여 一年을 二十四等分하여 每 하나의 節氣가 15. 22日이 되는데 이를 平氣法이라고도 부른다. 現在에는 定氣法을 使用하는데 太陽이 所在한 위치를 15° 간격으로 기점을 매겨 나가는 方法이다. 왜냐하면 太陽은 매일 黃道에서 移動할 때 속도가 不同하므로 하나의 節氣의 日數도 一致하지 않는다. 冬至를 前後하여 太陽의 移動은 빠르므로 一氣가 14日餘에 不過하고 夏至를 前後해서는 太陽의 移動이 느리므로 一氣가 16日餘에 이른다. 定氣法을 使用할때 節氣日數의 多寡는 비록 一定하지 않으나 春秋二分은 晝夜를 平分하는 一定한 날에 位置하게 된다. 隋의 劉焯은 恒氣法의 不合理를 파악하고 定氣法의 方法을 創出했지만 그의 曆法은 實行되지 아니 하였다. 그러던 것이 清代에 이르러 時憲曆에서 비로소 定氣法을 使用하였으니 中國曆法上의 一大改革이었다. 平氣法은 曆計算에는 편한 점이 있지만 그때그때의 기후관계를 예민하게 알 리지는 못한다. 定氣法은 이런 결점을 막기 위하여 定해진 것인데 이에 따르면 夏至와 大暑의 두 中氣사이의 시간 간격이 31日11時나 되는 반면 冬至와 大寒사이의 두 中氣間은 29日10時로 줄어 든다. 또 春分에서 夏至를 거쳐 秋分에 이르는 半年동안에 186日10時이지만 秋分에서 冬至를 거쳐 春分에 이르는 半年 동안은 178日20時로 되어 一周日以上 단축된다. 17)

4). 二十四節氣의 名稱에 對한 考察

二十四節氣의 意味를 陳希齡이 지은 格遵憲度抄本의 二十四節氣解에 依據해 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卷호속에 있는 것은 禮記月令의 孔穎達疏에 있는 內容이다

立春：立者見也 九十日之氣 往者過而來者續 故謂之立 立夏立秋冬皆同 陽氣動物 於時爲春 春蠢也 物蠢生乃動運也。

雨水：天一生水 人物之生 皆始于水 春屬木 木生于水 立春後繼以雨水（雨水者 雲山而爲雨水 自上而下曰雨 北風凍之則爲雲 東風解之則爲水）

驚蟄：氣積而奮 震而上達 萬物出乎震 震爲雷 故曰驚蟄（驚蟄子 蟄虫驚而走出）

春分：分者半也 九十日之半 謂之分 秋分同

清明：按國語四時有八風 曆獨指清明風爲三月節 此風屬巽故也 萬物齊乎巽 巽曰潔齊 清明取明潔之義（清明 物性清淨明潔也）

穀雨：孝經緯云斗指辰爲穀雨 言雨生百穀也（穀雨者 雨以生百穀）

入夏：夏假也 寬做萬物 使生長也

小滿：四月乾卦 謂之滿者 言陽氣已滿 小者將滿猶未至極也 又麥粒將已充足 亦爲小滿也（小滿 物長於此 小得盈滿）

芒種：謂種之有芒者麥也（芒種 有芒之穀 可稼種）

夏至：陽極之至 陰氣始生 一北至 日長之至 日影短至 故曰夏至

小暑：溫熱之氣而爲暑 小者未至于極也

大暑：大者乃炎熱之極也（小暑大暑 就熱極之中分爲大暑 月初爲小 月半爲大）

立秋：秋就也 萬物就成也

處暑：處止也 謂暑氣將于此時止也（處暑 暑將退伏而潛處也，對類曰處止 息也 孟秋溫熱漸退故曰處暑）

白露：水土濕氣凝而爲露 秋屬金 金色白 白者露之色 而氣始寒也（白露 陰氣漸重 露凝色白）

秋分：解見春分

寒露：寒者寒之氣 先白而後寒 固有漸也（寒露 露氣寒將欲凝結）

霜降：寒肅而霜降 陰始凝也

立冬：冬終也 物終藏也

小雪：雨爲寒氣所薄 故凝雨爲雪 小者未盛之辭

大雪：大者已盛之辭 由小至大 亦有漸也（小雪大雪 十月初小 十一月轉大）

冬至：陰極之至 陽氣始生 日南至 日短之至 日影長至 故曰冬至

小寒：冷氣積久而爲寒 小者未至于極也

大寒：大者乃栗熱之極¹⁸⁾（小寒大寒 十二月初寒爲小 月半寒爲大也）¹⁹⁾

素問의 至眞要大論에서 “氣至之謂至 氣分之謂分 至則氣同 分則氣異”²⁰⁾라 하여 二至에 對한 內容이 실려 있다. 이는 氣候의 變化가 極盛에 到達하는 때를 冬至 또는 夏至라 하고 氣候가 區分되는 것을 春分 또는 秋分이라하니 二至때에는 季節과 氣候의 變化가 一致하고 二分때는 季節과 氣候의 變化가 不同하다는 말이다. 張介賓

은 類經圖翼의 氣數統論에서 위의 내용을 “春分何以言分 分者半也 謂陰陽氣數 中分于此也 故以刻數之多寡言 則此時晝夜各得五十刻 是爲晝夜白刻之中分 以陰陽之寒誼言 則春分前寒以後熱 秋分前熱而後寒 是爲陰陽寒熱之中分 以日行之度數言 則春分後 日就赤道之地北 (赤道者 天之平線居兩極之中 各去九十一度三分度之一橫絡天復 以紀經緯之度數也 日行之路 謂之黃道 月行三路 謂之白度) 秋分後 日就赤道之南 是爲日行南北之中分 故春分曰陽中 秋分曰陰中也. 夏冬至何以言至 至者極也 言陰陽氣數 消長之極也.

故以刻數之多寡言 則夏至晝長五十九刻 夜長四十一刻 冬至晝長十一刻 夜長五十九刻 是爲晝夜長短之極. 以陰陽之寒誼言 則冬至陰極而陽生 夏至陽極而陰生 是爲陰陽寒熱之至極.

以日行之度數言 則冬至日南極而北返 夏至日北極而南返 是爲日行南北之至極 故冬至曰陽始 夏至曰陰始也.”²¹⁾라고 詳述하고 있다.

이 二分二至에다 四立 (立春 立夏, 立秋, 立冬)를 加하면 八節. 八正 또는 八紀라고 도 하는데 一年中 氣候變化의 전환점이 되며 生理變化에도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매우 重示된다.

이에 對해 張 介賓은 同篇에서 “四季何以言立 立者建也 謂一季之氣建立於此也.”²²⁾라 하였다.

東洋에서는 四季節을 各各 立春, 入夏, 入秋, 入冬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仲春의 月中을 春分, 仲夏의 月中을 夏紙, 仲秋의 月中을 秋分 仲冬의 月中을 冬至로 정함으로써 四季節의 區分이 分明하다. 西洋에서는 二分. 二至點을 境界로 하여 四季節을 나누고 있다.

3. 七十二候

素問의 六節藏象論에서 “日謂之候”라 하였는데 이말은 天地之氣는 五行의 變化인 데 太陽이 天之五度를 行하면 五日이 되고, 하루에는 十二時가 있으므로 五日에는 六十時가 되어 甲子가 一周하게 되니 이 사이에 五行畢而氣候易하므로 五日謂之候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節氣와 中氣로 된 二十四節氣보다 더 구체적 으로 年間變動을 나타내 주며 주로 鳥獸草木의 變動을 觀察하여 季節氣候의 變易를 驗証하는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周公이 지은 時訓에 처음 보이므로 周公이 制定하였다고 傳해지는데 曆에 채택 되기는 後魏時代 (六世紀初)의 正光曆부터 이다. 曆法에서 一年에는 四季가 있고 一季에는 三個月이 있고 一月에는 二氣가 있고, 一氣에는 三候가 있으므로 一年은 總 七十二候가 된다. 여기에 記錄한 鳥獸草木의 變動은 中國 陝西省의 氣候를 基準으로 한 것이므로 韓國의 氣候에 까지 그대로 適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七十二候의 內容이 가끔 바뀌기도 하였다.

張介賓의 類經圖翼에 있는 것을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正月	立春	初候東風解凍	二候蟄蟲始振	三候魚步負冰.
	雨水	初候獺祭魚	二候候雁北	三候草木萌動.
二月	驚蟄	初候桃始華	二候倉庚鳴	三候鷹化爲鳩.
	春分	初候玄鳥至	二候雷乃發聲	三候始電.
三月	清明	初候桐始華	二候田鼠化爲	牡丹華 三候虹始見.
	穀雨	初候萍始生	二候鳴鳩拂其羽	三候戴勝於桑.
四月	立夏	初候蟪蛄鳴	二候蚯蚓出	三候王瓜生.

	小滿	初候苦菜秀	二候靡草死	三候麥秋至.
五月	芒種	初候螳螂生	二候鵙始鳴	三候反舌無聲.
	夏至	初候鹿角解	二候桐始鳴	三候半夏生.
六月	小暑	初候溫風至	二候蟋蟀居壁	三候鷹始擊.
	大暑	初候腐草爲螢	二候土潤溽暑	三候大雨時行.
七月	立秋	初候涼雨至	二候白露降	三候寒蟬鳴.
	處暑	初候鷹乃祭鳥	二候天地始肅	三候禾乃登.
八月	白露	初候鴻雁來	二候玄鳥歸	三候郡鳥養羞.
	秋分	初候雷始收聲	二候蟄蟲坯戶	三候水始涸.
九月	寒露	初候鴻雁來賓	二候省入大水爲蛤	三候菊有黃花.
	霜降	初候豺乃祭獸	二候草木黃落	三候螻蟈咸俯.
十月	立冬	初候水始冰	二候地始凍	三候雉入大水爲蜃.
	小雪	初候虹藏不見	二候天氣上升地氣下降	三候閉塞而成冬.
十一月	大雪	初候鶡鴠不鳴	二候虎始交	三候荔挺出
	冬至	初候蚯蚓結	二候麋角解	三候水泉動
十二月	小寒	初候鷹北鄉	二候鶡始巢	三候雉鳴
	大寒	初候雞乳	二候征鳥厲疾	三候水澤腹堅.

4. 日刻 (日과 時刻)

一晝夜가 一日이 된다. 一日의 開始는 最初에는 日出로 부터 起算하였다. 夏代에는 平旦으로 日始를 삼았고 殷代에는 鷄鳴으로 日始를 삼았고 周代에는 夜半으로 日始를 삼았으며, 지금은 人間の 活動이 가장 적은 時刻을 擇하여 0時0分으로 基準을 삼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루의 起點은 時代와 民族에 따라 달라서 옛적에 이집트 민족은 새벽 동틀 때를 앓시리아, 바빌로니아, 인도, 근대 그리스 민족들은 해뜰 때를, 아테네 사람은 해질 해뜰 때를, 아테네 사람은 해뜰때를, 아라비아 사람은 正午를, 유대, 고대 그리이스, 보히미아, 이탈리아 등의 民族은 저무는 때를 채택 하였다. 유대 民族의 저무는 때란 二等星이 겨우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슬람교 民族은 지금도 해질 때를 하루의 始作으로 보고있다. 一日의 晝夜長短이 한결 같지 않으므로 禮記月令에서는 仲春月과 仲秋節에는 日夜分이 있고, 仲夏月에는 日長至가 있고, 仲冬月에는 日短至가 있다는 等等의 記錄을 했는데 이는 春分, 秋分은 晝夜를 平分하고, 夏至에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으며, 冬至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 이들 長短의 時間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아니 하였다.

殷武丁때에 晝夜를 八段으로 나누었고, 祖甲때에는 十段으로 나누었으며, 周代에는 十二段으로 나누어 모두 一定한 名稱을 두었다.

漢太初曆以後에 비로소 十二辰으로서 十二時段의 名稱으로 삼았다. 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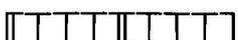
董作實的 考定한 표를 示하면 다음과 같다.

晝						夜					
殷(武丁)	明	大采	大食	中日	昃	小食	小采	夕			
殷(祖甲)	明	朝	大食	中日	昃	小食	暮	昏	昧(昧)	兮(曠)	
周	日出	食時	隅中	中日	昃	哺時	日入	黃昏	入定	夜半	雞鳴
漢	卯	辰	巳	午	未	辛	酉	戌	亥	子	丑
現代(時)	5-7	7-9	9-11	11-13	13-15	15-17	17-19	19-21	21-23	23-1	1-3

運氣學에서 주로 사용하는時刻은 漏壺를 利用하여 測定하는 方法과 一日을 十二時로 나누는 方法을 結合하여 使用하였다. 歷史적으로 考察해 볼때 刻漏는 黃帝時代에 始作되어 夏商代에 一般化되었으며, 周代에는 壺氏가 管掌하였다고 하였다.²⁵⁾

이 方法은 一晝夜를 百刻으로 區分한다. 주로 구리로 만든 漏壺(銅壺)를 使用하여 壺邊 또는 壺底에 구멍을 뚫어 담아 놓았던 물이 漏孔을 통해 流出되도록 하고 이 漏減의 多少로서 時間을 計算한 것이다.

過去의 滴漏法에는 두 種類가 있었다. 첫번째 方法은 沈箭漏로써, 나무로 된 箭杆(漏箭 或更籌라고도 함)에 百刻을 새기고 漏의 주둥이로 부터 壺中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 壺中의 물이 減少됨에 따라 箭杆가 가라 앉는데 이때 주둥이 가에서 부터 時刻을 觀察할 수 있다. 둘째 方法은 浮箭漏로 漏中의 물을 다른 容器속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때 時刻 새겨진 箭杆을 이 容器中에 고정 시켜 놓는다. 容器中의 물이 增加함에 따라 물에 浮물린 箭杆上의 時刻을 觀察하면 當時의 時刻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方法은 “孔壺爲漏, 浮箭爲刻”이므로 滴漏法은 漏刻法이라 統稱한다. 漏刻의 制作과 使用에 있어서는 時代에 따라서 改進이 있었다.²⁶⁾

周禮總歲를 보면 每刻을 다시 60分으로 나누었으니 素問의 天元紀大論에서 말한 “天以六爲節”과 符合하는 말이다. 이제 이 原則에 따라 計算하면 每日의 百刻은 總六千分이 된다. 六千分을 十二時로 나누면 每時는 五百分에 該當된다. 또 百刻을 十二時로 나누면 每時가 八刻二十分을 얻게 된다. 이를 前後(初正)로 兩分하면 各四刻十分이 된다. 이를  와 같이 表現할 수 있는데 이것의 名稱을

차례대로 初初刻(十分), 初一刻(一刻以下同), 初二刻, 初三刻, 初四刻, 正初刻(十分), 正一刻(一刻以下同), 正二刻, 正三刻, 正四刻으로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寅時初初刻, 寅時正一刻, 昃時初三刻, 등 처럼 十二時와 結合하여 活用하면 더 細分된 時間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每時를 八刻二十分으로 나누어 使用했던 記錄은 晉天福 三年의 記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 때의 記錄은 四刻十分을 正前으로 삼고 十分四刻을 正後로 삼아 二十分의 中心을 時正(時之半)으로 삼았던 것이 좀 차이가 난다.²⁷⁾

위에서는 一刻을 六十分으로 計算했지만 이는 歷史적으로 恒常 固定된 것은 아니었

다.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 말하는 “甲子之歲 初之氣 天數始于水下一刻 終于八十七刻半 二之氣 始于八十七刻六分 終七十五刻” 등에서 보이는 半과 六分 등은 一刻을 十分으로 나눈 原則에 根據한 것이다. 이것의 淵源은 잘 모르겠지만 高麗朝와 朝鮮朝에 쓰였던 宣明曆에서는 一刻을 八十四分으로 定했었고 世宗때 編纂된 七政算內篇에서는 一刻을 白分으로 計算했었다. 27)

또 一日을 100刻으로 정한 것도 12時로 나눌때 나머지가 나와 不便한 점이 있었으므로 淸初에는 一日百刻대신 一日 九十六刻을 使用하였다. 이렇게 할때 每時는 8刻이 나오고 이를 四刻씩 初正으로 나누면 24時間이 나와 現代의 時間法과 一致하게 된다. 이 96刻制는 1653年(孝宗四年) 時憲歷法이 採擇된 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使用되었다.

그리고 “甲子之歲 初之氣 天數始于水下一刻”에 對해 한가지 더 추가할 말은 水下一刻의 起點은 오늘날 처럼 0시에 始作하는 것이 아니라 寅時初初刻으로 보아 실지로는 寅時의 出發點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끝으로 옛날의 使點法에 對해 살펴보면 이는 特히 밤 동안에만 쓰이던 時制로 밤을 五個의 時段으로 나누어 使用하였다. 現代의 時間과 配合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9)

夜間時段	五 夜	五 更	時 間
黃 昏	甲 夜	一 更	19-21
人 定	乙 夜	二 更	21-23
夜 半	丙 夜	三 更	23- 1
鷄 鳴	丁 夜	四 更	1-3
平 旦	戊 夜	五 更	3-5

結 論

이 글은 序論을 導出하기 爲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運氣學說의 理解를 爲해 曆의 마디를 이루는 一年, 四季, 二十四節氣, 七十二侯, 日, 時刻에 關해 散在한 內容을 綜合 整理한 것이므로 讀者의 諒解를 求하며 省略한다.

參 考 文 獻

1. 李 殷晟 曆法의 原理分析 서울 正音社 1985
2. 洪 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方葯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 書經 서울 二以會刊 1983
5. 松下見林 運氣論奧疏抄
6. 劉安 淮南子 李 錫浩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4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8.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84